

..... 행사 스케치

2003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여성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제품 선보여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열린 '2003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는 여성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임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생활 속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작은 발명품에서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여성 기업의 색다른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박람회는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2003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의 시작을 올리는 팡파르와 함께 축포가 터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성부 지은희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 특허청 하동만 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영숙 회장, 최영희 국회의원, 허은나 국회의원, 매일경제신문사 김진수 전무,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미숙 부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최선배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코엑스(COEX) 태평양관 3·4실에서 '2003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열린 이번 박람회는 특히 발명의 달인 5월을 기념하여 우수한 발명품과 여성 기업인의 다양한 제품들이 함께 어울어지는 장을 마련하였다. 5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이번 박람회는 100여 개 업체가 200여 개 부스에 참가했으며 여성발명관, 여성기업관, 여성창업관, 공공기관, 홍보관 등으로 나뉘어져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박람회 첫날에는 여성부 지은희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 특허청 하동만 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영숙 회장, 최영희 국회의원, 허은나 국회의원, 매일경제신문사 김진수 전무,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미숙 부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최선배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

막식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내빈들은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제품으로는 기미, 주근깨 등을 없애주는 화장품을 선보인 (주)미래클코즈(대표 황분순), 성광석과 거정석·게르마늄을 원단으로 한 의류와 매트를 선보인 (주)백선상사(대표 김운생), 새롭게 대나무 돗자리를 선보인 삼보상사(대표 김향순), 신선초를 급속동결 냉동건조 공법으로 건조가공하여 선보인 샬롬산업(주)(대표 김정매), 전자 에너지 침을 선보인 오이에너지(대표 이민희), 순수 황토로 염색된 의류와 생활용품들을 보여준 (주)황기모아(대표 류숙) 등이다.

이렇게 선보여진 다양한 제품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 맛볼 수 있어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제품쇼를 통해 각 제품들의 우수성을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 전시된 제품들을 관람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창업이나 발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은 함께 참여한 공공기관(강원도청, (재)서울여성,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출원이나 창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좋은날의 최승애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제품인 전통한과와 쌀강정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더 많은 여성 기업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이와같이 뜻깊은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여성 발명가와 여성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정착되기 위해 이번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더욱 다양하게 펼칠 예정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여 다음 해에도 더 성대한 박람회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 첫날 개막식 행사를 마친 내빈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주)미래클코즈에 방문하여 황분순 대표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신선초 급속동결 냉동건조 공법을 통해 화장품과 각종 건강식품을 선보인 샬롬산업(주)의 부스 앞에서 김정매 대표이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하동만 특허청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제9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든 발명가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불편함 정도는 쉽게 지나치고 말지만 '제9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그렇지 않은 특별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활 속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나의 것'으로 만든 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제는 환한 터널의 끝으로 나아가고 있다.



▲ 지난달 22일에 열린 '제9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가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레들 역시 모두 하나같이 우수한 발명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으며, 이번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발명품들을 개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순식품연구소 조은경 대표이사, (주)한국라이스텍 윤명희 대표이사, 콩그린식품 윤성순 대표, 동강대학 식품영양학과 황금희 부교수, 솔아원 김점선 대표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자신들이 발명한 발명품들을 소개하고, 사업화하기까지의 사례들을 청중들에게 발표했다. 그리고 선정된 발표자들에게는 '우수 여성발명인 패'가 수여되었다.

2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의 우수 여성발명인으로 선정된 발표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더 많은 여성 발명가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삼보상사(대표 김향순)가 선보인 왕골 접숫자리를 만져보고 있는 하동만 특허청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의 모습.



◀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품 발표자인 '전주'의 시음행사를 하고 있는 억만장자식품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순옥).



◀ 색소가 아닌 천연 재료로 색과 맛을 낸 오색 쌀강정과 한과를 선보인 좋은날(대표 최승애). 독특한 디스플레이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박람회를 통해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공공기관 부스. 매일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공공기관 역시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



◀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만지락 양초 공예 교실'은 신소재 양초를 이용해 누구나 원하는 모양의 양초를 만들 수 있었다. 박람회도 관람하고 원하는 모양의 양초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시간.



◀ 개그맨 김의현이 진행한 제품쇼. 전남 구례에서 황토 염색을 하고 있는 (주)황기모아의 류숙 대표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 각종 대금결제와 청구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진 하나로 बैं킹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주)베스트존.

우수 여성발명인들의 이야기

사례1 생약 및 한방원료를 이용한 메디캡디 개발 조은경 다순식품연구소 대표이사

저감미 당원료와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조제된 생약농축액을 이용,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충치와 당뇨병 등의 질환 예방 효과를 내는 캔디를 개발했다.

사례2 정미기 및 현미저온 저장고 개발 사례 윤명희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현미의 영양가를 살리는 정미기를 개발하고 현미를 찢고 나면 나오는 미강을 이용, 미강차·쌀눈차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이다. 또한 현미를 저온 저장하기 위해 현미저온저장고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삼성 홈플러스 23개 매장에 입점한 상태이다.

사례3 발효 콩음료 개발 사례 윤성순 콩그린식품 대표

콩이 발효되어 끈적끈적한 액기스가 된 액체를 유연히 발견, 발효콩을 제조하고 콩발효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암 투병중인 환자에게 무료 체험행사를 거쳐 콩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4 양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황금희 동강대학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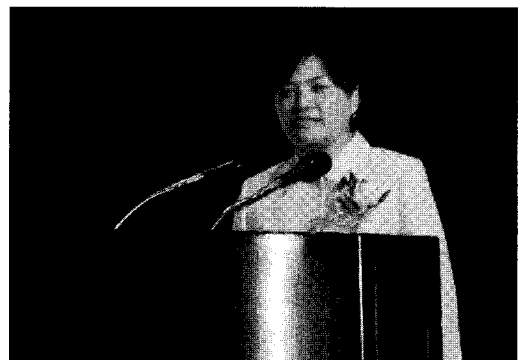
무안 황토랑 양파를 이용, 양파 환·양파 정과·양파 양갱·양파 고추장·양파 떡 등을 개발하여 특허와 상표를 출원했다. 특히 양파 양갱은 전국대학생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아이템이다.

사례5 친환경적 천연약초 비누 등 개발 사례 김점선 솔아원 대표

일체의 화학적 성분을 배제한 99.9%의 친환경적이며 거품을 억제하여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천연약초 비누를 생산했다. 또한 환경친화형 액상비누의 제조방법 등의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 이날 사례 발표자들에게는 하동만 특허청장이 우수 여성발명인 패를 수여했다.



▲ 양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사례를 발표한 황금희 동강대학 부교수.